

조계종, 포교·전법활동 포기하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21세기 아쇼카선언'을 내세우며 종교평화 선언문 초안을 발표했지만 '굴욕적'이라는 평가 등 불교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화쟁위는 8월 23일 템플스테이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화쟁위는 종교간 상호 존중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원전 3세기 중엽 인도 아쇼카왕을 사례로 꼽았다. 아쇼카왕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한 모든 종교의 신

화쟁위, 종교평화선언 논란

범용 스님 "해중 행위" 지적

자를 존경하고 타 종교에 대한 비난이 아닌 조화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화쟁위는 "이웃종교를 진정으로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웃 종교인의 허물과 기쁨을 내것으로 여기는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며 "이웃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배우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적 입장과 실천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화쟁위는 종교평화 실현을 위해 열린 진리관, 종교다양성의 존중, 전법과 전교의 원칙, 공적영역에서의 종교 활동, 평화를 통한 실천을 강조했다. '열린 진리관'은 불교의 진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했으며 '전법과 전교의 원칙'에서 화쟁위는 전법이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초안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포교와 전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불교와정책 운영위원 범용 스님은 25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반론을 제기했다. 스님은 "사실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창조적 세계관인 기독교 사상을 동일시하며, 포교는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는 등 사부대중의 신심과 대중 교화활동에 제동을 거는 해종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종교간 화해와 상생을 통해 사회를 잘 가꾸어 나가자는 데는 공감하나 지나친 저자세와 굴욕에 가까운 선언, 사회적 논리와 종교적 교리의 혼재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범용 스님은 화쟁위 종교평화 선언에 앞서 열린 7월 내부 토론회에서도 선언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님은 종교평화를 언급하면서 아쇼카왕을 거론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쇼카 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존경한다고 밝혔지만 형제를 살해하고 주변국을 정복한 인물이다.

범용 스님은 "종교간 평화 상생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선언문은 중단 기구가 승려들을 향해 기독교를 배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불교계 또 다른 관계자도 "다른 종교의 진리도 인정하겠다는 불자들이 교회에 다니라는 말인가? 포교와 전법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재가 목소리... 승가에 들릴 날 올까

조계종 신도단체와 첫 대화서 "신도 역할 충실해 달라"

신도 없으면 스님도 없다

위기 의식서 마련된 자리

섬집함에 성도 줄이자...

매분기 지속 개최하기로

"1만 명이 참여하는 교구신도회 차원의 대운동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스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 하지 못했다. 중단과 불교발전, 사찰 운영에 애정을 갖고 조언했으나 나서는 목소리만 들어야 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결사추진본부는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부대중 공동체를 위한 신도 대중공의를 중단 사상 최초로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도들에게 의견을 묻자 "그간의 소통부재에 대한 진심한 목소리가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이 결사의 실천과제라면 중단은 물론 사찰 운영에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

"호남불교는 불자들이 없어질 지경이다. 연동축제를 지역별로 순환 개최하는 등 호남지역 전통사찰에 중단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강병호 제7교구 신도부회장)

이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중단은 직접 사업보다 재가신도 지원에 나서달라"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전국신도회로 명칭을 합의해놓고 중회의 '중앙신도회' 명기로 10여 년 동안 원 명칭을 사용 못하고 있다"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특히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은 중단차원의 교구신도회 지원과 실질적인 신도조직의 역할 강화, 중앙총회를 비롯한 재가자의 중단 운영 참여를 제안했다.

민 회장은 "승가에서 재가 입장을 경청해 달라. 바깥일은 세속에서 지낸 재가자들이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서운함에 대한 신도단체들의 목소리가 사그러들 줄 모르자 대화를 주관한 자승 스님은 첫 자리임을 강조하고 그 마음을 결사 실천과 중단 발전을 위해 한데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신도들이 없으면 스님도 중단도 의미가 없다 향후 분기별로 지속적인 소통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인양당
농인양당의 침향갤러리
침향박물관 · 침향유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현호)는 8월 25-29일 세계청소년 불자교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삶을 깨워라(Now and Here, awakened life!)'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50여 청소년이 참가했다. 청소년들은 예불과 발우공양 등을 통해 한국 전통사찰의 수행 및 신행을 경험했다. (차주상보)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 계파 초월해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동국대 이사를 발전기금 안낸다"

9월 예정된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을 앞두고, 새 이사는 동국대의 비전 제시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7일 예정된 총림학교관리위원회 회의와 19일 제187차 임시중앙총회에서는 공식인 동국대 이사 2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정웅기)는 8월 22일 '중앙총회의 이사후보 선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입장에서 '총림학교 이사 자질·책임에 대한 강조는 수차례 걸쳐 제기돼 왔

고, 최근 동국대 재단 현실로 비춰볼 때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국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동국대 이사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예정된 공식인 이사 2명 선출은 10월 이사 8명의 임기만료·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돼 동국대의 학원 운영의 향방이 갈릴 중요한 인선이다.

최근 동국대는 언론보도에서 재단전입금이 일반 사학재단의 평균 비율인 8.8%에 못미치는 2%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단

이사들이 중앙총회 총재모임 간 합의된 학교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인권의 사표가 되어야 할 총림학교 재단 이사들의 기여와 자질의 문제가 수년 간 반복되는 것은 전체 중단의 커다란 명에'라고 주장했다.

조종섭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봉은사, 수행환경 지키기 위한 42개월 대장정 시작

최근 한국종합무역센터 증축 계획 등으로 수행환경을 위협 받고 있는 천년사찰 봉은사가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3년 기도를 일제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천년사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 다라니독송 3년 대장정기도를 9월 21일부터, 철야기도는 10월 15일부터 매일 1회씩 42개월(3년 6개월) 동안 불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은사는 1971년도 도시공원법 지정에 따라 40여 년이 넘도록 사찰 내 각종 수행도량의 중·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증축계획 등 주변 고층빌딩의 신·증축으로 인해 한국 불교의 도심 속 수행 중심도량으로서 위상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대장정기도는 봉은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구하고 마음을 모아 극복하고자 마련됐

다. 기도는 주간과 철야로 나뉘어 주간기도는 매일 관음재일 이후 2~6시, 철야기도는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천수다라니 108독송과 관세음보살 42대원 진언을 하며 진행된다.

진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수행

중심도량으로 기쁨을 이어온 봉은사의 이번 노력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 시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봉은사를 불법(佛法)과 수행의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교회에 길 내준 보광사 '계약파기'

사찰부지 사용에 관한 총무원장 승인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파주 보광사가 새문안교회와 계약 파기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제850호 보도)

파주 보광사는 8월 23일 새문안교회측과 만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반환했다. 보광사는 새문안교회측에 납골

당 진입로 사용 허가 당시 총무원장 승인을 받지 못해 절차상 착오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문안교회도 상황을 이해하고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 보광사는 같은 날 교구본사 중무회의에 참석해 계약 해지 사실을 보고했다.

박기범 기자

"무엇을 하든 그것에만 열중하세요"

78세 비구니스님 동국대 대학원 영문학과 진학

동국대(총장 김희욱) 대학원에 78세 노스님이 입학해 화제다. 승도 스님(1934년생)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은 8월 23일 동국대 중앙강당에서 열린 2011년 가을학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승복을 입은 고령의 비구니스님인 것도 놀랍지만 교수가 아닌 영문학 석사과정 신입생이기 때문이다.

산수(傘壽)를 앞둔 스님은 12살 된 애견 선묘와 함께 살며 수재화



그리기를 소일 삼아 산다. 헬스클럽을 다니며 건강을 챙길 정도로 현대인이다. 스님은 "언제 무엇을 하든 그것에만 열중하라"고 당부했다. 조종섭 기자

가져도 '내가' 가졌다는 생각 없는 평상심으로 지혜롭게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 조계종 원로의원 교수 스님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 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 축약본)

지금 우리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한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과 진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적 세계관은 서로 다른 인간들이 상호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평화적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연기적 세계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관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저것' '나'와 '남'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연관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기적 세계관으로 본다면 반복과 대립은 바람직한 생존의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것' 또한 부정하는 것이요, 남을 부정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을 인정해야 하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연기적 세계관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웃종교는 '이웃'에 있는 나 자신의 종교이며, 내 종교를 비추고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된 존재일 뿐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있는 거울입니다. 나의 종교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듯이 상대의 종교 또한 우주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과 열린 정신은 인도의 아쇼카왕이 남긴 새김 글에도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쇼카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건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소중하게 실천해야 할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불교인은 오늘날 종교 간의 갈등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연기적 세계관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관점이며, 불교가 세상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이웃종교를 진정으로 '이웃'으로 생각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웃종교인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이웃종교를 질시하거나 경쟁하는 상대로 여겼던 적은 없었는지 반성합니다. 이웃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배우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이런 반성과 참회 위에서 우리 불교인은 한국사회의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교적 입장과 실천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열린 진리관 :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열린 진리관은 이웃종교를 대하는 기본 원칙이며 대화와 소통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2)종교다양성의 존중 :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종교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호존중의 호혜성은 종교다양성을 실천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교인이 지켜야 할 하나의 정법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법수호의 정신입니다.

을 실천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교인이 지켜야 할 하나의 정법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법수호의 정신입니다.

(3)전법과 전교의 원칙 : 믿음을 전하는 일은 곧 자신의 믿음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요, 서로 다른 믿음을 지닌 이들과 어울리면서 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전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실현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지향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4)공적영역에서의 종교 활동 : 공적 영역의 종교 활동은 민주적 이념과 시민적 상식과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공적 지위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 권력이 신앙전파의 수단인 되거나 공적 장소가 신앙전파의 무대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개인적 신앙이 공적 영역에 작용해 종교적 편향성을 낳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이를 유념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평화를 통한 실천 : 평화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종교간 평화를 가로막는 갈등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불교인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불교인은 이상의 입장과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종교평화가 정착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함께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인락을 얻고자 하듯이 이웃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 평화와 인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르고자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언어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인락을 얻고자 하듯이 이웃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 평화와 인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르고자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언어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인락을 얻고자 하듯이 이웃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 평화와 인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르고자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인락을 얻고자 하듯이 이웃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 평화와 인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르고자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851호 CONTENTS

태고종 운산·인공 공방 성호 스님 별면·계적 무효 법일 스님 구족계 삭계 무효	2
화쟁위 종교평화선언 비판	3
팔공산 승사·동화사	5
특집 · 8·9·16·17 간화선국제학술대회	
대장경축전 D-30	19